

고시키누마 늪

고시키누마 늪은 반다이산 기슭의 언덕에 있는 약 30 곳의 호수와 늪 지대입니다. 이 호수와 늪 지대는 1888년 반다이산이 분화한 후 형성되었습니다. 이 분화로 인해 땅이 무너져서 강이 막히고 주위의 삼림과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삼림은 재생되었고 자연환경도 회복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호수와 늪

고시키누마 늪은 화산의 퇴적물이나 규산알루미늄, 철, 구리, 망간과 같은 광물 입자로 인해 독특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구리색, 푸른색, 녹색의 조화가 빛의 조건, 퇴적물의 변화, 수면의 반사 등에 의해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반다이산의 북쪽 경사면 위쪽의 아카누마라고 불리는 높은 산성을 떠는 화구호는 몇 개의 호수와 늪에 흘러 들어가는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원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반다이 비지터센터에서 히바라 호수까지 4km의 산책로를 가다 보면 여러 개의 고시키누마 늪의 옆을 지나갑니다. 이 평탄한 길을 걸으면 편도로 약 90분이 걸립니다.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고시키누마 늪 지역을 포함하는 우라반다이의 경관은 1888년 반다이산의 분화로 화산재와 암설(암석 파편), 이류(진흙의 흐름)로 뒤덮여 20년 가까이 불모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삼림 재생 촉진을 위한 정부 주도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삼림 조성에 성공한 사람은 해당 구획의 토지를 우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삼림 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상인이자 환경 활동가이기도 한 엔도 겐무(1863~1935년)입니다. 1917년, 그는 임학 교수인 나카무라 야로쿠(1855~1929년)의 지도로 그룹을 이끌고 약 13만 개의 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삼나무, 옻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그리고 더 많은 소나무를 계속 심었습니다.

엔도와 그의 그룹이 노력한 지 1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고시키누마 늪은 동식물이 번성하는 생태계를 품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야나기누마와 아오누마 사이에는 엔도를 기념하는 돌로 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